

프랑스의 지성, 산사체험 '예약'

템플스테이 열풍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불 조집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80명이 해인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한국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체험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는 프랑스의 역사학 교수 및 교사들의 단체인 경제사학회(ADHE) 회원 80명이 4월 21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4월 23-24일 해인사에서 1박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1월 27일 알려졌다.

경부고속철도 부분 개통을 맞아 한국을 찾는 이들 역사학자들은 해인사에서 발우공양, 다도, 참선, 새벽예불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파리지사 박재석 차장은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수행전통과 불교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라며 "산사에서

역사학자 80명, 4월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 문화 홍보에 효과적 프로그램 증거 관광공사, 외국 대상으로 마케팅 확대

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8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해인사 템플스테이는 해외에서 템플스테이 바람을 일으키

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지사는 앞으로 지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관광 상품에 템플스테이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템플스테이아말로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관심도 높은 편"이라며 "템플스테이 전담 기구

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불교계에서 템플스테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본부 구미림 김배호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경우 '템플스테이'와 '참선'에 맞춰 올해의 해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의 주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외 현지의 외국인들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방문하는 역사학자들은 해인사 템플스테이 참가 외에도 불교사와 석굴암, 통도사, 범어사, 수원 화성, 경복궁, 판문점 등을 방문하고, 고려대와 아주대, 경북대 등에서 한-불 역사학자들간 공동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佛敎연극, 중국에서 막올린다

부산의 극단 '하늘개인날(대표 곽종필)'이 지역 극단으로서 최초로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 불교연극을 선보인다.

극단 하늘개인날 곽종필 대표, 정허스님, 권철씨 등은 국가화극원 초청으로 지난 해 말 중국을 방문, 연 1회 이상의 교환 방문공연과 인력양성교류, 연극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의 향서를 체결했다.

불교 연극 <느낌, 극락같은>은 교류의 향서의 첫 이행으로 중국 관객을 만나기 위해 현재 무대 장치, 음악 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극단 하늘개인날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연극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느낌, 극락같은> <이> 등으로 전국연극제 대령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극단이다. 또한 중국 정부 산하의 예술기관 국가화극원은 원장이 중국 장관급에 해당 될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서 지방의 극단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교류 체결은 하늘개인날 곽종필 대표가 99년 국비로 중국 연수를 하면서부터 인연이 돼 하늘개인날 前대표였던 정허스님과 곽대표가 국가화극원과 여러 차례의 견을 나눈 끝에 4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맺었다.

이번 교류 체결로 국가화극원은 상반기쯤 원곡 피해의 잔혹성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연극을 부산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며 하늘개인날은 10월 베이징에서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작, 곽종필 연출)을 공연할 예정이다. <느낌, 극락같은>은 지난 1999년 전



극단 '하늘개인날' 곽종필 대표(오른쪽)가 중국 국가화극원 조유량과 만나 문화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부산의 극단 '하늘개인날' '느낌, 극락같은' 공연

극단 하늘개인날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연극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느낌, 극락같은> <이> 등으로 전국연극제 대령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극단이다. 또한 중국 정부 산하의 예술기관 국가화극원은 원장이 중국 장관급에 해당 될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서 지방의 극단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극단 하늘개인날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연극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느낌, 극락같은> <이> 등으로 전국연극제 대령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극단이다. 또한 중국 정부 산하의 예술기관 국가화극원은 원장이 중국 장관급에 해당 될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서 지방의 극단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불청 부산지구, 환경지킴이 나서

제 38차 정기 총회에서 '환경특별분과' 설치 의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에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특별분과'가 설치돼 부산 청년불자들의 환경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는 1월 26일 대가사 불교청년회관에서 '제 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불청 부산지구 산하에 환경특별분과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결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올해 주요 행사계획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황국근 회장은 "불교적인 생명 사상을 근간으로 청년불자들의 동참을 이끌

기 위해 환경특별분과를 설치한다"며 "향후 청년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환경 수호 운동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특별분과는 빠르면 2월중에 설치되며 회원들 자체 교육, 답사 등을 통한 환경 의식 고취는 물론 사찰 환경,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한편 대불청 부산지구는 2월 10일쯤 임시총회를 개최, 입기가 만료되는 주요 입원단을 구성하고 200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치료비가 없어 답아났던 40대 어머니가 18년 만에 치료비를 갚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윤모씨(46, 사천시)는

18년 만에 병원 찾아 치료비 갚아
미안함에 매년 30만원 장학금 전달

장 정회교을 찾아 밀린 치료비 21만원을 접수했다. 윤모씨는 86년 4살이던 아들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물레 달아났다. 그러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윤씨는 최근 한 사찰을 찾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까지

늦지 않았으니 병원비를 갚으라는 한 스님의 말에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윤씨는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 이제부터 매년 30만원의 장학

금을 병원에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병원 측은 윤씨 아들의 병원 진료카드를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라며, 21만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윤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청년 불자 박원구 씨를 도읍시다

2억여원의 수술비 마련 못해

급성간부전증 수술비와 치료에 필요한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불교방송 '박원구 기자 돕기운동'이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동화사, 은혜사, 대구사원 주지연화회, 대구광역시신도회 등 지역 불교 단체들이 1월 29일 대구불교방송국에서 모임을 갖고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대구경북지역불교계를 주축으로 결성된 '박원구 불자들이 모임'은 3월말까지 사찰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불교기자협회 또한 15개 회원사들과 함께 박원구 기자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화생회를 거쳐 93년 대불청 대구경북지부장, 민족평화통일불교협회 간사,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대구불교방송 기자로 활동하던 박원구 씨는 급성 간부전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1월 16일 사촌

대구사원주지연 5일 방생법회 '한해 풍요와 평안' 발원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정월 대보름인 2월 5일 오후4시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지역불교 연합행사인 대구 모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방생법회는 보광원 조실 하산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 만 여명이 참석해 생령 존중에



급성 간부전증으로 간을 이식받은 박원구 씨.

동생 박성구씨와 부인 홍순안 씨의 간을 이식 받고 회복중이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수술비와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월 15일 개설한 카페에는 박원구 씨에 대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카페 회원들은 인연 닿은 사찰이나 스님들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모금도 함께 벌이고 있다. 박원구씨 돕기 계좌-대구은행: 014-08-031387-9 / 예금주: 박원구 후원문의: 한국불교기자협회 016-292-1987

배지선 기자

대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한해의 풍요와 평안을 발원한다.

1부 법요식과 2부 달맞이 방생법회의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해bane에 설치한 대형 달집에 불을 사르는 민속놀이도 열린다.

한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지난 1월 25일 원명 스님(조계종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 신도 100여명과 함께 남구 대명동 불교대학교5층에서 갑신년 신년 교례회를 봉행했다. (053)629-9500

배지선 기자

한국 불교무용 대만무대 선다

대만의 가장 큰 행사중 하나인 원소절 행사에서 불교무용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춤이 선보여진다.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신관로 차창역 앞 특별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채향순 중앙가무단의 공연이 그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중앙가무단은 바라와 승무 등 불교무용과 제천무, 판굿, 장고춤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작품 중 특히 불교무용인 '화현'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바라춤사위에 실어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표현하고 세계인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번에 중앙가무단이 초청된 원소절 행사는 정월 대보름 연등제 행사로서 음악 정

월 15일에 열리며 '등절(燈節)' 또는 '등석(燈夕)'이라고도 불리는 대만의 대표적 축제. 해마다 전세계에 실력있는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올해는 일본의 요사코이 퍼레이드단, 말레이시아의 국립예술단, 몽고전통예술단, 중국문

화대학교 공연단 등을 불러 들었다. 채향순 중앙대 국악대학 타악연희와 교수는 "중앙가무단은 순수하게 중앙대 타악연희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예술을 펼쳐 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031)670-4727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관세음보살의 화현을 주제로 한 불교무용 '화현'.

채향순 가무단 초청 '화현' 등 바라춤 선보여

대만의 가장 큰 행사중 하나인 원소절 행사에서 불교무용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춤이 선보여진다.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신관로 차창역 앞 특별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채향순 중앙가무단의 공연이 그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www.samhwade.com

중국 남경한의과대학 2004년 특차 모집 (마지막회)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남경중의약대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유학용
석박사과정	3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효장사범대	4년	•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1~3학년 편입가능	• 여권용사진 10매

- 중국 의과대학, 남경중의대, 남경효장 사범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계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deu.cn

1. 주지스님 추천자 또는 지도교사 및 담임추천, 고등학교졸업자
2. 효장대는 전학과 신입 및 3학년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4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삼화불교대)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Tel. 86.25.6322539 / Fax. 86.25.5320825
- 한국상담 안내처: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 2027, 1080
Fax. 02)511-2028



중국남경의과대학 · 중의대학